

# 광복 80주년 기념 판페라 하이라이트 만나볼까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9일 예술의전당 소극장 무대

판페라 '이순신'·'무령' 등  
창극 '여울물 소리'도 선배



2023년 7월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박승희 상임지휘자 취임 연주회 모습.

광주시립합창단이 광복 80주년 기념 무대인 'Song of Arirang'이라는 타이틀로 성황리 진행한 데 이어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상임지휘자 박승희)이 해방 80주년을 기념하는 판페라 하이라이트 공연을 선보일 특별한 연주회를 19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갖는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그동안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창작, 제작했던 작품 중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 판페라 '이순신' 등 3개의 판페라(국악 오페라) 공연의 하이라이트를 선사한다.

먼저 판페라 '이순신'은 이름 없는 백성과 한 장수의 고독이 음악으로 만나는 정장의 시가(詩歌)이며 고려가요와 한시, 조선시대 균영 음악, 판소리 어법, 서양 오페라의 구조를 융합한 창작 판페라이다. 임진왜란 속 민초와 충무공 이순신의 신념, 두려움,

고뇌, 그리고 불굴의 정신을 그리며, 고전과 현대가 만나 인간 '이순신'을 입체적으로 조명한 것이다.

특히 전통예술의 뿌리를 살리되 현대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음악과 극, 무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한국형 오페라'의 실험작이자 성취작품이다. 음악적 특징으로는 판소리와 오페라를 융합해 전통 창극의 소리와 발림, 추임새 등의 기반 아래 독창, 중창, 합창 등 다양한 보컬 양식 활용한 작품으로 소리꾼 박춘맹 등을 비롯해 전남도립국악단 단원들의 협연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 무대에서는 판페라로 특별 제작된 '무령'의 하이라이트를 선보인다. 백제 무령왕과 왕릉

의 역사적 의미를 바탕으로 한 창작 판페라로,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및 경위강국 선포 15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됐다.

이 작품은 백제의 찬란한 문화와 백성의 삶, 왕의 정신을 극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판소리와 오페라를 융합한 판페라 장르이다.

음악적 특징으로는 판소리 어법을 기반으로 하되, 오페라식 극적 구조와 서양 관현악 기법을 결합했다. 모티브 중심의 음악 전개로 무령왕과 백성 테마를 반복 사용하며 서사의 감정선을 이끈다. 음악이 단순 반주를 넘어 등장인물 심리와 상황을 표현하는 적극적인 역할로 음악과 무대가 유기적으로 호

흡한다. 소리꾼 정보권, 김윤희, 박성우 등이 각기 무령과 예령 그리고 모태왕역을 맡는다.

끝으로 창극 '여울물 소리'의 주요 곡들을 만날 수 있다. '여울물 소리'는 구한말 동학농민운동과 민중의 삶을 배경으로 한 창극으로 2024년 광주시립창극단 창단 35주년을 기념하는 브랜드 작품으로 제작됐다. 황석영 작가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전통 판소리와 현대 창극을 넘나드는 새로운 음악극 형식으로 재탄생했다.

음악적 특징으로는 판소리 중심의 선율 위에 오케스트라, 신디사이저 등 현대적 편성으로 인물별 테마와 정서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음악 구조다. 여

향(餘響, 음악의 잔향)을 강조해 감성적 여운 연출했고 격동의 조선 말기, 통학 사상을 따르는 민중들의 삶과 고난 속에서, 이신통과 정연옥은 절망 속에서도 인간 존엄성과 희망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한다. '하늘이 사람이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민중 연대와 인간 중심 사유를 상징한다. 이날 공연을 위해 역시 광주시립창극단원들의 특별 협연이 계획돼 있다.

이번 공연은 6세 이상(2020년생 이전 출생자)이면 관람할 수 있다.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또는 티켓링크 누리집(1577-7800) 예매가 가능하다. 문의 062-415-5403.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소리꾼 김윤희

## 마지막 퍼즐 맞춰... '아카이브 공간' 문 열었다

나주정미소, 방치된 2동 복원  
작은미술관 등...자료 제시도



가장 마지막까지 방치됐던 나주정미소 2동이 최근 복원돼 아카이브 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나주학생독립운동이 장이 됐던 나주 정미소가 문화·예술의 정으로 새롭게 탄생한 가운데 5개 동 중 2동은 가장 마지막까지 방치돼 왔다. 특히 2동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점으로 평가받아 왔다. 나주학생독립운동이 모의됐던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 2동 건축물이 3일 준공 기념행사를 열고 새로운 아카이브 공간으로서의 출발을 대내외에 알렸다. 다만 원형을 되살리기 위해 자재들을 재활용했지만 공간이 조금 늘어났다. 높이를 조금 높여 원공하는 등 다소 오늘날 관점으로 접근해 아쉬움을 남기기는 했다. 현재 나주 정미소의 복원 전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번에 2동이 복원되면서 전남 나주 성북동에 위치한 나주 정미소는 더 완벽한 역사거점이자

문화예술 거점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나주정미소는 1920년대에 호남에서 최초로 세워진 기계식 정미소로, 일제강점기에 세워져 강제 수탈을 당한 아픔이 서려 있는 곳으로, 당시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하던 호남 유일의 정미소였다.

1929년 10월 30일, 조선인 여학생(광주여자고 등보통학교 박기옥)을 못살게 굴던 일본 학생들과의 충돌이 생겼다. 박기옥의 땀겨머리를 잡아 희롱하던 일본인 남학생을 박기옥의 사촌동생인

박준재가 항의한 것이 패싸움으로 번졌다. 이것이 계기가 돼 자신의 형인 박준삼이 건립한 나주정미소에 모여 회의를 한 것이 학생독립운동의 바탕이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1950년대부터 1971년까지 금호그룹의 창업자인 고 박인천 회장이 '축호정미소'로 운영하다가 불이 나 1980년대 이후로는 폐건물로 존재했다.

이 장소를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2016년 나

주시에서 매입해 문화·예술의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나주읍성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한 '작은 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으로 만들어진 작은미술관은 지난 2024년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일부 공간은 공연장으로 활용돼 음악회, 토크 콘서트 등이 열리며 지역민에게 열린 문화 무대가 되고 있다. 5동은 내부에 카페가 있어 음료나 다과를 즐기며 작품 관람할 수 있어 모두에게 호평받고 있다.

작은미술관은 '수줍은 고백, 평범한 날들의 특별한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개관 2주년 기획초대전을 열고 있다. 이번 초대전은 오는 29일까지 나주정미소 내 전시관 4, 5동에서 진행된다.

김현희 총괄 큐레이터는 "지역민이 편안하게 오갈 수 있는 미술관의 느낌으로 참여작가도 일상을 그려내 관람하는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시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엄재용 인턴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뇌과학특별전 관람객 '인기몰이'  
국립광주과학관, 체험 전시 호평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뇌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돕고 일상 속 뇌와 관련된 현상들을 체험하며 인간의 사고와 감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뇌과학 특별전 '신기한 뇌세계'가 여름방학 이후에도 주말에 일일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뇌과학을 체험 중심 콘텐츠로 풀어내어 아이들에게는 놀이동산 같은 즐거움과 동심을, 어른들에게는 뇌과학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아인슈타인 호두 이벤트 △뇌 풍선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돼 전시관 전역에 웃음과 활기로 채워지며 과학을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오는 21일 전시가 종료되기 전까지 행운의 뽑기 이벤트 등 기념라성 이벤트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동행 지역상공인

**파인트리 요양원** ☎ 062) 236-3816  
광주 동구 남계길 23(내남동)

##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 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치매, 노인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 그 외 65세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

아침체조 (매일)

간호사 케어

신축 고급 실내 (물리치료)

- 넓고 쾌적 최신식으로 신축 고급요양원
- 축락의사(월2회), 외부강사(월18회)
- 상차림 및 행사 (생신 및 어버이날, 명절 등)
- 맞춤형 전문케어(치매, 배변,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21인)
- 물리치료 기기 다수 다양, 편리하게 이용
- 넓은 공동공간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